

미국의 쌀농사에 관한 일연구

Lee Jeon, *The Historical Geography of Rice Culture in the American South*

서울 : 서울大學校 美國學研究所, 1991, 186p.

李 惠 恩

(東國大學校 地理教育科)

지리학분야에서 우리나라 지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중 연구대상 지역이 우리나라 이외의 지역인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역사지리학분야에서 연구대상지역이 한국이 아닌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한국 지리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외국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우선 주목받을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사려된다.

이 책은 미국 남부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舊作文化를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내용으로 저자의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그대로 책으로 펴낸 것이다. 흔히 벼농사라고 하면 몬순아시아 기후지역의 대표적 농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美國이라고 하면 밀을 대표작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미국 남부지역이라면 면화, 사탕수수에 관한 내용만이 많이 알려졌을 뿐 벼농사에 관한 연구는 적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비교적 생소하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쌀생산은 세계에서 1.4%를 차지하는 12위 생산국이며, 쌀 수출국으로는 타일랜드를 제외하면 세계 제 2위의 국가로 전체 수출량의 20.3%를 차지하고 있다.¹⁾

이와같이 세계적인 쌀 수출국인 미국에서의 쌀 농사는 면화나 사탕수수의 경작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졌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요 작물로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벼농사는 노동집약적 농업으로 노예를 이용한 경작이었고, 불안정한 시장가격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벼농사의 대중성이 감소되었고 부분적으로 작물의 대체가 이루어졌던 것이다.²⁾ 그후 벼농사는 장소를 옮겨 이어졌지만 면화, 사탕수수 plantation에 가려 남부지역에서조차 크게 대두되는 농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는 남부지역은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생산의 75% 이상을 생산하는 등 주요 쌀생산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저자도 본문에서 밝혔듯이 미국에서, 특히 남부지방에서의 벼농사는 대서양 연안지역에서 노동집약적 농업으로 시작되어 내륙지역으로 이전되었고 과거의 벼농사 지역은 다른 작물

1) 最新 地理統計, 1992, 古今書院, p. 42.

2) Ralph H. Brown, 1948, *Historical Geograph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pp. 140-145.

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변화하였다. 이와같이 토지이용의 변화, 벼농사지역의 변화 등에 따라 미국 남부지역에서의 농업문화도 변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벼농사에 관한 연구가 우리나라 학자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60년으로 이찬의 *A Culture History of Rice with Special Reference to Louisiana*라는 연구가 있다.

이찬의 연구는 루이지애나주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본 연구는 미국 남부지역의 주요 벼농사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하여 연구지역의 확대를 피하였으며, 벼농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고찰 분석하였다. 미국 남부지역에서 畵作地域의 발달과정과 기능의 변천을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둔 본 연구는 어떻게, 왜 그 지역에 벼농사가 이루어졌는가, 미국 남부지역중 동부의 대서양연안지역에서 미시시피강 유역까지로 논농사지역이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벼농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변천되었는지에 어떠한 자연적 인문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고찰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였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 벼농사지역, 자연환경적 요소, 농업기술적 요소, 농업경제적 요소, 사회정책적 요소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여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도식화하여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의 학문적 배경으로 농업지리와 역사지리의 연구경향 등을 서술하였고, 남부지역에서 벼농사문화의 역사지리적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선행연구의 소개 및 설명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였다.

*Rice-Producing Regions in the South*라는 제목의 제 2 장에서는 미국 남부지역에서 이루어진 벼농사의 기원, 성장, 쇠퇴를 고찰하였다. 남부지역에서의 벼농사지역이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동부 대서양연안지역에서 내륙의 미시시피강 유역까지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각 지역의 쌀 생산량의 변화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제 3 장은 *Water Supply and Management in Rice Cultivation*이라는 제목하에 벼농사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업기술적 요소인 관개 또는 수리시설을 지형, 기후 등 자연환경적 요소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진 관개기술에 대해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조수를 이용한 관개에서부터 지하 파이프라인과 *sprinkler*까지, 또한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관개기술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 4 장은 *Tools and Machinery: Mechanization of Rice Farming*이라는 제목으로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및 기계화 정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기계화 이전의 낫, 도리깨, 절구 등에서부터 기계화가 이루어진 이후 쓰여진 *tractor*, *combine* 등과 경비행기까지, 초기의 원시적 농기구에서 대규모 기업적 쌀경작 및 생산에 이용되는 농기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적 요소인 품종개량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 제 5 장은 *Improvement in Rice Varieties*

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다. 쌀의 모양과 색, 벼의 성장속도 및 성숙도, 물의 필요정도, 병충해에 대한 내구성 등과 쌀의 요리방법까지가 벼의 품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의 개량은 벼농사의 확대 축소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각 지역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벼의 품종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벼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대한 설명도 곁들이고 있다.

Crop Rotation, Fertilization, Crawfish Raising, and Weed, Insect, and Bird Control이라는 제목의 제 6 장에서는 또 다른 농업기술적 요소인 작물경작양식에 관한 내용인, 즉 벼와 어떤 작물이 혼작되며, 어떤 작물과 윤작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벼와 대표적 혼작물은 콩이며, 윤작의 경우에는 소사육을 위한 목초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농작물에 해를 주는 벌레, 사향쥐, 새 등에 관한 내용과 토지비옥도 유지를 위한 방법까지를 설명하였다.

제 7 장은 Research Institutes and Farmers Organizations의 제목으로 벼농사의 형성 및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적 요소인 농업연구소, 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즉, 쌀을 생산하는 농부들이 쌀판매를 위해 조직한 협동조합, 경미산업, 쌀의 생산증대를 위한 연구기관, 실험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연구내용의 마지막 장인 제 8 장은 Policies and Programs라는 제목으로 사회정책적 요소인 농업정책과 농업경제적 요소인 국제시장에서의 쌀 수요와 공급, 농업에 관한 각종 법률, 쌀 생산량의 조절정책까지 고찰하였다.

제 9 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국내에서 특히 남부지방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진 과정과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대규모 기업적 농업으로 전환되어진 과정을 자연환경적 요소 및 인문적 요소까지 전체를 요약, 설명하였다. 벼농사는 단순한 농업의 형태가 아닌 각종 요소에 의해 그 생산정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서술하였고, 결론적으로 미국 남부지역에서의 벼농사의 전망은 인문적인 요소에 좌우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문적인 요소는 쌀가격, 국제시장에서 쌀의 수요와 공급관계, 기타 작물의 토지이용, 농업기술의 발달 등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상과 같이 본서의 내용을 고찰하였는데, 연구의 흐름은 저자가 처음 의도한대로 남부지역의 벼농사에 관련한 모든 조건을 고찰하여 왜, 어떻게 벼농사 지역이 형성되었고 어떻게 변천하였으며, 그 변천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저자의 농업에 대한 이해와 미국 남부지역에 대한 자연적, 인문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것으로 저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엿보이는 역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리적관점의 연구였다는 점에서 벼농사지역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천하게 된 데는 어떠한 이유들이 결정적이었는지, 또한 각종 법률이나 관계시설 등

이 지역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각종법률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지방에서의 조건 등을 따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또는 삼차원적인 표를 작성하여, 시대에 따라, 농업기술 및 각종 보조법률의 변천에 따라 벼농사지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훨씬 돋보이는 연구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199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인데 역사지리학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인 백과사전적인 나열식의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었더라면하는 바램이 있다. 1980년대에 들면서 역사지리적 접근방법에도 요인분석을 비롯 이론적 배경에 입각한 현대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도 좀 더 분석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였다면 훨씬 역사지리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 있어서 현지답사를 통하여 수집한 1차자료가 주로 연구자료로 이용되었음은 역사지리연구에서 흔히 있어서 고문헌에만 의존하는 연구방식을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더구나 역사지리의 특성상, 타지리학분야와 연계를 갖고 연구하여야 하는데 본 논문은 농업지리와 연계하여 자칫 역사지리학자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인 연계학문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내용을 서술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농업자체에 대한 내용까지도 상세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면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몇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저자의 학문적 자세와 노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로서 후학들에게 연구자세와 연구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역사지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리학을 전공하는 모든 지리학자들에게 외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연구로 사려된다.